정동영·추미애·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로 이뤄진 '쇄신모임'은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집단 지도체제 및 전 당원 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민주 당권 광주·전남으로 돌아올까

박주선·김효석·천정배의원 도전장
전대 앞두고 비주류 '反정세균' 시동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주류와 비주류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 정치인의 당권 확보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광주·전남지역 출신 정치인은 박주선·김효석·천정배 의원 등이다.

박주선 의원(동구)은 18대 국회 상반기 최고위원을 지내며 지난 2년 동안 차분하게 당권을 준비해왔다. 박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당내 비주류와 중도 진영을 아우르는 한편 당내에서 소외된 구 민주계의 맏형 역할을 소화하며 나름대로 탄탄한 기반을 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화하고 합리적인 활동을 펼쳐와 주류와 비주류 가릴 것 없이 당내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을 맡아 뉴-민주당 플랜을 만들어냈던 김 의원은 '변화와 쇄신'을 기치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취약한 당내 기반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목포 출신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당내 비주류의 대표 주자를 자처하며 주류 측과 각을 세우고 있다.

참여정부 창출에 핵심 역할을 했던 천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에 이은 전당대회가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쇄신 기회라고 주장하며 당내 지지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박주선·김효석·천정배 의원의 당권 도전은 상당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당권과 대권 분리, 전 당원 투표 도입, 지도체제 전환 등 차기 전당대회의 룰이 정해지지 않아 민주당의 당권 구도는 복잡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여기에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동영 의원과 손학규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여부도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박주선·김효석·천정배 의원은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당내 기반 확대에 나서는 한편 차기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내 상황 변화를 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세균 대표가 당권 재도전에 나선다면 중도 및 비주류 주자들이 후보단일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비주류 그룹은 16일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 정세균 연합'을 기치로 세 불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비주류 의원들로 이뤄진 '쇄신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정 대표를 성토하며 집단 지도체제 및 전당원 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정동영·천정배·추미애·박주선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비주류 의원들은 ▲정 대표 임기 만료 이후 임시 지도부 구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당권과 대권 분리 ▲전당원 투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비주류 측은 기존의 쇄신모임을 원외 인사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준비위를 발족했으며, 전국 권역별 당원 대회를 거쳐 내달 4일 '쇄신연대'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인적쇄신 의견 나누나
박광태 시장-강운태 당선자 25일 회동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박 시장 퇴임을 5일 앞둔 오는 25일 회동할 예정이다. 박 시장과 강 당선자는 지난달 27일 선거운동기간 행사장에서 만난 이후 한 달 만에 퇴임을 앞둔 시장과 취임을 앞둔 당선자의 입장에서 마주하게 됐다.

강 당선자는 16일 "지난달 27일께 어느 행사장에서 박 시장과 만나 날짜는 따로 안 정하고 6월 하순께 만나자고 했다"며 "박 시장의 임기가 끝나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주로 지난 8년 간 박 시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당선자는 또 "알려진 것처럼 인적쇄신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한 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 7일 민선 5기 인수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 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및 본청 조직개편, 핵심사업 재검토 등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 시장과 강 당선자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하지만 박 시장 측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강 당선자에게 제의하는 방식으로 만남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민선 3·4기의 성과와 과오를 설명하면서 민선 5기에서 승계·지속해야할 정책이나 사업을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미 약속이 돼 있는 만남이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며 "퇴임 일정의 하나로 인수위와는 상관 없는 주제들로 덕담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3월 강 당선자와 회동 자리에서 불출마 사실을 강 당선자에게 미리 알렸고, 다음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나라 '지방선거 호남 3인방' 여권내 역할 주목
최고위원 출마하고 정부 요직 맡을 듯

지방선거에서 불모지인 호남에서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던 '3인방'이 여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전남지사 후보였던 김대식(48)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광주시장 후보 정용화(46)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전북지사 후보 정운천(56)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바로 '호남 후보 3인방'이다. 이들은 호남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올리며 선전한 '공'을 발판으로 당정청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밝힌 '젊은 피로의 세대교체'의 대상자인 40대와 50대여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6일 한나라당 관계자는 "호남 3인방 중 한 명이 내달 10~14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며 "일단 정 전 비서관과 정 전 장관 중 한 사람이 출마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보여준 득표력을 감안할 때 기존에 호남 배려 차원에서 당 대표가 지명했던 최고위원이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해 호남에 대한 한나라당의 애정과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대식 전 사무처장은 이날 "이번 선거에서 제가 13만표, 정 전 장관이 15만표, 정 전 비서관이 7만표를 받았다. 호남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35만표를 준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면서 "호남에 대해 한나라당이 애정이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호남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도 "영남은 한계에 달한 느낌이지만, 호남에서는 노력한 만큼 지지가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번 선거에서 입증됐다"면서 "이제 호남에 비중을 두고 당이 공력을 들여야 할 시기가 됐다"고 공감했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김 전 사무처장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정 전 장관이나 정 전 비서관은 전대 출마 등을 통해 당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차기 대통령실장 누구?
임태희·이석채·원세훈씨 등 하마평
박형준·박재완 청와대 수석도 후보군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지난 3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청와대 인적개편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차기 대통령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장 후보군을 밝힌 바는 없지만 여권에서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이석채 KT 회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50대 초반으로, 이른바 '젊은 피'로 분류될 수 있는데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장과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다는 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요인이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3선의 관록을 바탕으로 정무감각도 뛰어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석채 KT 회장 역시 대선 때 이 대통령의 외곽 자문그룹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의 제1기 국민경제자문위원으로 활약했던 'MB맨'으로 분류된다.

옛 경제기획원 출신에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지낸 베테랑 경제관료로 정책 능력이 훌륭하지만 정치 경험이 적고 60대로 나이가 다소 많다는 점이 부담으로 지적된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행정1부시장을 맡아 청계천 복원과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주요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기여했고 현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일처리가 깔끔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점이 강점이나 정보기관 수장이 곧바로 대통령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다소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 외에 박형준 정무수석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 대통령실장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인적개편의 대상인 현 청와대 참모진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do.kr

민주 재보선 기획단장 윤호중부총장

민주당은 16일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에게 7·28재보궐 선거 기획단장을 겸임토록 했다.

윤 전 의원은 정세균 대표 취임 후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으며 6·2 지방선거에선 야권연대 협상대표와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또 정책위원회 당직 개편을 단행, 정책위 부의장에 오제세·김재윤·이성남·최영희 의원을, 정책조정위원장에 백원우·안규백·백재현·주승용·김춘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최고위원회는 4대강사업저지특위를 재구성, 이미경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자치연대팀, 시민사회연대팀, 사업검증팀, 법률팀으로 구성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원섭 前후보 민노당 최고위원 출마

민주노동당 장원섭 전 광주시장 후보가 다음달 열리는 중앙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동당이 선명한 진보정당, 유연한 대중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분골쇄신하겠다"며 "차기 지도부가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이뤄내고 대선에서 진보적인 정권교체의 중심축을 담당하기 위해 당의 체질을 바꾸는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달 3~7일 당원 총투표를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광주·전남지역 유세는 오는 22일 광주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